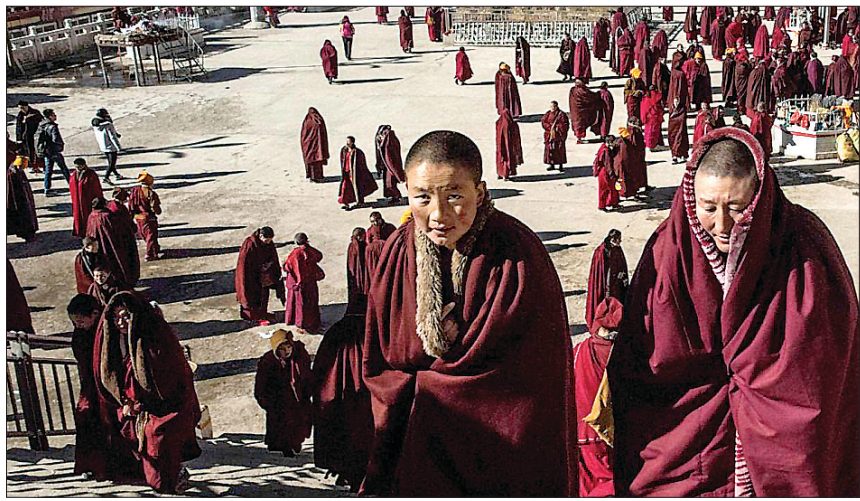


# 티베트 비구니, 성 평등 외치며 '고군분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티베트 성 불평등 현상 지적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은 냉혹한 성 불평등 문화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 쓰촨 지방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티베트 불교학교에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티베트 여성 인권과 비구니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비구들은 이 변화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3월 15일(현지시간) 티베트 여성들이 겪는 성불평등 현상과 함께 이를 탈피하기 위한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의 노력을 조명했다.

**“티베트 불교, 불평등 외면해” 일부 불교학교, 여성 입학 거부 비구니, 주지 스님 될 수 없어 비구계 “서구 사상일 뿐” 반발**

티베트에서 가장 오랜 불교종파인 님마(Nyingma)파의 불교학교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여성들의 입학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100여 명 비구니 스님들은 이곳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더불어 불교 여성인권 관련 책·잡지를 출간하며 불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성 불평등 현상은 나타난다. 여성들은 불교 학교 내 사원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남성들은 비구니 사원 출입 내 모든 시설들은 남녀공용으로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불평등 현상은 계속 돼 왔다. 이와 관련 신더 사자모우니 비구니 스님은 티베트 불교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권리 및

자격을 누리지 못하는 점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신더 스님은 “불교에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말한다. 부처님이 강조한 핵심사상이 ‘평등’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많은 원로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교계 내부에선 이 같은 현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티베트 불교 내 다른 종파에서도 성 불평등 현상은 큰 문제로 거론된다. 티베트 불교에선 비구니 스님들은 비구 스님처럼 주지스님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겔록파는 범왕인 달라이라마가 노벨상 시상식에서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칭할 정도로 여성인권 향상에 우호적 태도를 나타냄에도 불구, 겔록파 불교학교는 여성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익명의 원로 비구니 스님은 “우리는 비구 스님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비구니 스님 또한 “티베트 승단으로부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이 같은 활동을 펼친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티베트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설타르 불교연구소 비구니 스님들은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권향상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 스님은 “모든 종교에선 자비심과 이타적인 삶을 가르친다. 우리는 티베트 여성들의 건강 및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우리의 활동은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기본 권리를 위한 당연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 간수성 랑저우에 위치한 ‘서북민족대학’의 팜모(Palmo) 티베트문학 교수는 티베트 여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티베트 여성 인권이 개선되기까지 1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시도가 티베트 사회

와 불교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젊은 세대도 여성인권 향상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페마(23) 스님은 “이 같은 움직임은 비구니 스님들이 성 평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비구 스님들은 ‘서구적인 콘셉트’일 뿐이라며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왕축 스님(45)은 “성 평등”과 “페미니즘”은 외국에서 유입된 사상이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티베트 불교를 외부로부터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중국정부도 티베트 여성 인권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은 티베트 독립과 민족주의 운동을 저지하며 10년간 라령가 학교의 학생 수를 감축해왔으며, 2001년에는 학교 주변 2천여 개의 목조 가옥을 철거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 자치구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성 불평등 문화가 일반 여성들의 승려 출가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일반인으로서 겪는 성 불평등을 견디지 못해 승려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티베트 비구니 문화를 수년간 연구한 파리 동아시아사회조사센터 니콜라 슈나이더는 “티베트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비롯해 가사노동의 90퍼센트 이상을 책임진다. 또한 중매결혼, 가정폭력, 고부간 갈등 등이 티베트 여성들을 비구니 스님으로 귀의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처럼 일반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승려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기원전 3C 사리함, 무분별 방치 '논란'

19세기 타밀나두로 이동... 갤러리서 보관

인도 첸나이 박물관(the government Museum in Chennai)이 기원전 3세기 불교 유물을 장시간 방치하고 있어 학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도 언론 'The Hindu'는 3월 15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동부의 군투르(Guntur) 시(市)에 위치한 바티플로루 사리탑(Bhattiprolu stupa)에서 찾아낸 사리함이 완전 방치돼 있어 불교 및 고고학계를 화나게 했다”며 “학계는 유물을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로부터 이송시키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리함이 발견된 바티플로루 사리탑(Bhattiprolu stupa) 유적지.

사리함은 1872년 영국 공무원 로버트 스웰(Robert Sewell)이 바티플로루 사리탑에서 발굴 작업을 펼치던 중 발굴했다. 울창한 초목에 덮여 있던 사리탑은 앞서 1870년 보스웰(Boswell)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고대·중세 인도의 일상어인 프라크리트(Prakrit inscription) 어가 새겨져 있었으며, 마우리아 폴리시(Mauryan polish; 마우리아 시대 미술 양식으로, 표면에 심한 광을 내는 기법)가 사용돼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영국 공무원들은 19세기 바

티플로루 마을로부터 마드라스 박물관으로 사리탑을 이송했다. 그러나 이송 후 사리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나그리디(Nagireddy) 박사는 “사리함은 귀중히 보관·전시되는 것 대신에 에그모아(Egmore)에 있는 아마라바티 갤러리 한 칸에 부주의하게 방치돼 있다”며 “정부는 사리함을 즉시 군투르 지역으로 되찾아와 가치에 맞게 보존 및 전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리함은 인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로 5개 함으로 구성되어, 기원전 3세기 쿠베리카 왕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72년 발견 당시 몇 개의 염주 및 사리가 내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 레스터 시티 EPL 1위 질주... 불교가 비결?

3년 간 선수들 위해 태국 스님들 기도 '논길'

레스터 시티가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서 1위로 질주하며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가운데, 이 기적과 같은 활약이 종교적 힘에서 비롯된 것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30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레스터 시티FC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레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 간신히 잔류에 성공한 것을 감안하면 기적과 같은 성과다. 큰 이변이 없다면 창단 최초 EPL 우승도 노려볼 수 있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레스터 시티가 EPL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활약의 근거가 '태국 스님들 덕분'이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이에 대해 “태국 스님들 덕분”이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영국 대표 스포츠 매체 'ESPN FC'는 “당신은 레스터 시티의 활약이 뛰어난 코칭, 고강도 훈련, 궁극의 팀워크를 생각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아니다. 태국 불교 스님들에게 큰 공로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태국 스님들은 지난 3년간 레스터 시티 소속 선수들을 위해 연습 혹은 경기장을 방문, 선수들에게 행운을 불러넣어주고 일부에게는 그 징표로 부적을 나눠주기도 했다. 프라 프로 망갈라란 스님은 “나는 그들에게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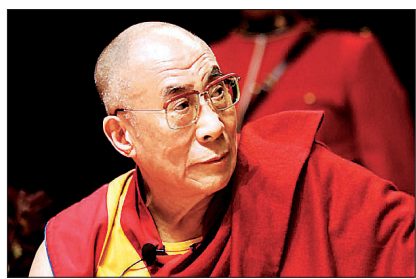
을 목에 걸어줬다. 선수들이 내가 설명한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 전부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 굳은 믿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레스터 시티가 훈련에 종교적 방법을 도입한 것은 구단주 비차이 스리바다나 프라바 때문이다. 비차이는 고대 불교 철학 중 카르마(Karma; 업)에 확고한 신념을 둔 불교 신자로서 알려져 있다. 이에 비차이는 레스터 시티 경기마다 태국 스님들을 초청하고, 스님들이 선수들을 위해 기도하게끔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사찰서 예불 뿐 아니라 강의 함께 해야”

달라이라마, 3월 6일 위스콘신 법회서 강조

달라이라마는 3월 6일(현지시간) 위스콘신서 열린 법회에서 불교 사찰들이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술적 강연을 위한 곳으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베트 언론 '더 티베트 포스트'에 따르면 달라이라마는 위스콘신에 위치한 디어파크 부디스트 센터에서 “30년 이상 현대 과학자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분석하는 토론을 해왔다. 이러한 시도는 비(非) 불자들도 불교를 보다 쉽고 논리적

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과학과 접목해 가르친다면 불교센터들이 불교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불교 센터와 사찰에서 기독교·유대교·힌두교·이슬람교 등과 함께 종교간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각 종교들의 전통적 가르침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바로 ‘사



달라이라마는 불교 사찰들이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술적 강연을 위한 곳으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티베트포스트

람”이라며 “우리가 더 행복한 인류를 창조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서로 사랑과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달라이라마는 종교간 분열을 반대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막으려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더 티베트 포스트'는 “불교는 이웃종교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 바 있다”며 지난해 여름 프랑스 불교센터에서 개최한 무슬림교와 불교 어린이 합동 스카우트 캠프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불교사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학의 불교 타당성 연구’ 등 주제를 다룬 불교계의 과학적 연구에도 주목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용 비누가 있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안나고 진작 사용할 걸!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초정광전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적극최소화

편백비누 소독 이 총복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계로 1961 Tel 043-296-7776 Mobile 010-3280-7776 http://cafe.naver.com/hinokijungle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은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신성불상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